
2026년
추석 가정 예배



www.junahim.kr
02-2237-5009

주내힘교회

추석 가정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인도자

오늘은 풍성한 나눔과 은혜를 누리는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 460)

보통으로

1. 지 금 까 지 지 내 온 것 주 의 크 신 은 헤 라
 2. 몸 도 맘 도 시 연 내 약 하 나 새 힘 크 받 신 아 살 았 네
 3. 주 님 다 시 뵈 을 날 이 날 로 날 로 다 가 와

한 이 없 는 주 의 사 랑 어 켜 이 루 말 하 라
 물 붓 거 운 이 집 주 께 말 겨 벅 을 날 도 멀 잤 네

자 나 깨 나 주 의 손 이 항 상 살 펴 주 시 고
 사 랑 없 는 거 리 에 나 힘 한 산 궤 해 땀 때
 나 를 위 해 예 비 하 신 고 향 집 에 돌 아 가

모 든 일 을 주 안 에 서 형 통 하 게 하 시 네
 주 의 손 을 주 께 안 에 서 찬 송 하 토 록 가 리 라
 아 버 지 의 품 안 에 서 영 원 하 토 록 살 리 라

기 도 말은이
 성경말씀 신명기 8장 11 - 20절(구약 275쪽) 말은이

-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 12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 13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 14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 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 16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 17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 19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 20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나눔 ‘기억하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 말은이

말씀나눔

기억하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

출애굽 광야의 40년, 길고 고단했던 여정이 끝나갑니다. 눈앞에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벅찬 전환점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전합니다. 모세의 설교에는 앞으로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갈 자녀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뜻한 당부가 배어 있습니다.

모세의 사랑과 당부의 한 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풍요로움이 자칫 그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덫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왔기에 누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다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는 직접 땅을 일구고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두 손으로 추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땀방울이 맺힌 풍성한 창고를 바라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착시 현상'과 같습니다. 나의 수고,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성취했다는 생각에 빠지면 어느새 우리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져갑니다. 풍족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모세의 이 외침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결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일궈낸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삶의 위기마다 헤쳐 나갈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 지금 내쉬는 생명의 호흡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풍요 속에서도 은혜의 기쁨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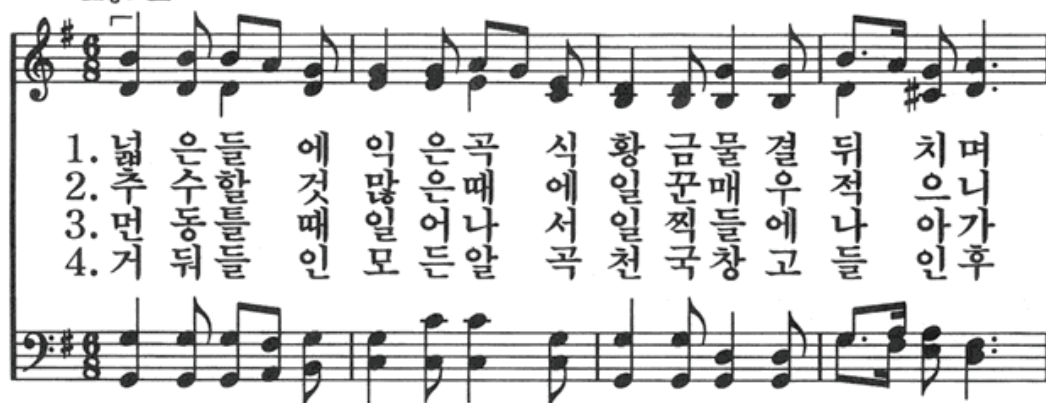
사랑하는 주내힘교회 성도 여러분,

결실을 거두고 풍요를 누리는 오늘이 있기까지 올 한 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땀 흘려 일했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풍성한 식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만큼 이루었는가" 하는 나의 자랑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쉬지 않고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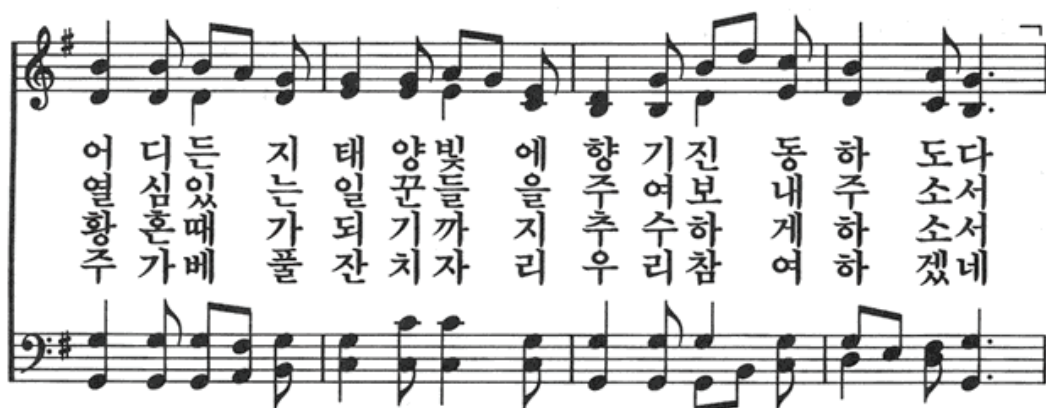
더욱 오늘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안고 걸어오신 하나님의 크신 손을 찬양하며 진실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89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통일 308)

보통으로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2. 추수는 할 때인 많은 어나알 에서 곡 일꾼들에게 고 치느니
 3. 먼 동 들 때인 모 든 알 처 천 국 창 에 나 아 가
 4. 거 뒤 들 인 모 든 알 처 천 국 창 에 나 아 후



어디든 지 태 양 빛 에 향 기 진 동 하 도 다
 열심 있 는 지 일꾼 들 을 주 여 보 내 주 소 서
 황혼 때 가 풀 되 기 까 자 리 추 수 리 참 계 하 소 서
 주 가 베 풀 잔 치 자 리 우 리 참 여 하 겠네

후렴



무 익 은 저 곡 식 은 낮 을 기 다 리 는 데



때 가 지 나 가 기 전 에 어 서 추 수 합 시 다 아 멘

주 기 도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